

■광주 U대회 지원법 연내 제정 가능성

자원봉사자 양성·인프라 구축 박차

핸드볼·장애인탁구 등 국제경기도 주관

내년 1월26일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대회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통과시켜 법제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시는 U대회 조직위의 설립근거가 되는 U대회 지원법의 제정이 가시화함에 따라 곧바로 조직위를 구성, 그동안 차질을 빚은 대회 준비기간을 만회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위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U대회 조직위를 구성한 뒤 내년 1월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100여명 안팎의 조직위 사무국을 개설한 뒤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조직위는 U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 대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맡게된다.

또 국제경기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 대회, 세계 장애인 탁구선수권 대회, 2012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주관·주최한다.

한편, U대회 지원법은 기존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과 2015광주하계 U대회 지원법을 한데 묶은 통합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성하는 '국제경기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특례조항은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기념 주화·우표 발행 ▲택지 분양 사업 허용 ▲U대회 휘장·마스코트 등의 배타적 사용 등이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 시설과 선

수, 임원, 보도진, 관람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 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U대회 특별법안에 명시된 남북단일팀 구성·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조항은 삭제돼 U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지원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법제정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U대회 조직위를 축으로 차질없이 U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캐릭터인 다스 베이더, R2-D2, 스톰 트루퍼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며 증권거래소 개장뱀을 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정동채 "광주 현안 해결 시민대토론회 갖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핵심현안에 대해 단발성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이 제안한 핵심현안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 ▲동구장 건설 ▲4대강 사업을 위한 구색맞추기 식 영산강 수질개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경제에 미칠 위기상황 극복 ▲미분양아파트와 도심공동화 ▲광산읍 활성화 방안 등이다.

광주시의회 동구장 특위 구성

○...광주시의회는 23일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야구장 건립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구장특위는 유재신 의원(사진)을 위원장으로, 전우근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으며, 손재홍·김선문·김동식·김월출·조호권·양해령·이철원 의원 등 총 9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위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동아구장 건립의 타당성은 물론 부대사업 특혜여부, 개방형 구장 및 리모델링 방안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심의할 예정이다.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의회 새 의장 선출 실패

○...현직 의장이 농업조합장에 출마해 빈축을 샀던 광주 북구의회가 이번엔 의원간 내분으로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23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회회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의장 선거를 이날 실시, 단독 입후보한 이은

방 의원(민주·마 선거구)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당선 요건인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선거에는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 6표, 무효·기권 각각 1표가 나와 의장 선출에 실패했고, 이어 2차 투표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결국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조만간 보궐선거 재공고를 내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박재순 '당 국민통합특위장'에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고흥·보성 당협위원장)이 23일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호남 출신 박 최고위원을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충청 출신 송광호 최고위원을 이듬다른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장에 선임해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외 지구 위원장,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흥래 전 차관 "진도군수 출마"

○...김흥래(68)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23일 내년 진도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중앙정부의 공직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조만간 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추경안 의결 싸고 '난장판'

벼 경영안정비 놓고 나락 뿌리고 의원들간 몸싸움

반대 의견 묵살 표결없이 통과 시켜 '무효' 논란도

전남도의회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포함한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처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결과정에서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본회의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24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5조5천233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추경안 의결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 원 확보를 약속했던 도의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우태·고송자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2명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고송자(민노·비례)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농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12억 원

을 증액해야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결 직전으로 예산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인환(민주·구례)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이의없느냐?"고 물은 뒤 일부 반대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의없다"고 하자 표결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고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정우태(장흥) 의원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12억 원 추가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장석에 올라가 박 의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정 의원은 또 나락

을 담은 상자를 본회의장 바닥에 던지고, 고 의원이 나락을 의장석에 뿌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오면 추경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장은 "고 의원의 발언은 반대의견이 아니라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의견표명으로 표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상정된 예산안인데다 회기 마감일이기에 이를 보류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노당 소속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뱀·야생화·갯벌·생약초·동물의 섬

전남도 5대 생태공원 조성 본격화

태공원 등 5대 생태공원에 대한 경관디자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관회의에서는 합평 뱀생태공원의 경우 바다포장과 지붕, 벽

면 등의 마감지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전체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 뱀 생태공원 외면 벽면재료의 수직 또는 사선의 입면 형태를 전체 주벽 상황을 고려해 단순명료한 공간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관회의에서는 또 갯벌공원의 경우 한옥 황토집을 거주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개발의 전제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행기자 redplane@